



왼쪽부터 사무총장 후보 **이장원**, 위원장 후보 **김용서**, 수석부위원장 후보 **송수연**

제 1 노조를 이룬 저력으로 ‘1번 더’ 도약 하겠습니다

20만 교사노조로 도약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10대 교육·교사 현안 해결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일 : 2023.1.17.(화) 10:00~18:00 ● 개표일 : 2023.1.17.(화) 18:05 ● 당선자 공고 : 2023.1.17.(화) 18:30

※ 이 홍보물은 연맹 선거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제작·배포되는 선거공보입니다.

입후보자 약력 및 경력



김용서
위원장 후보

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

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2020~)

현)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 겸 공동대표
(2022~)

전)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2020)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2017~2019)

전) 서울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2016~2017)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후보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

현)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2022~)

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 추진 준비팀장
(2022~)

전) 경기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2020~2021)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2020~2021)

전) 경기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2018~2019)



이장원
사무총장 후보

평생교사노동조합 조합원

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2020~)

현) 평생교사노동조합 위원장(2021~)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2017~2019)

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2018~2019)

전)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2017~2022)

3대 연맹 위원장단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

김용서 위원장 후보 출마사

우리 교사노조는 창립 당시 257명에서 현재 6만 명의 제1 교원노조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노조 앞길에는 첫 번째 도약을 바탕으로, 두 번째 힘찬 도약을 하여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20만 교사노조로 비상하고, 교사의 정치 시민권을 회복하며 당면한 10대 교육·교사 현안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2대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노조연맹 제2 도약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후보 출마사

경기교사노조 창립 당시 ‘평범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였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사노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평범한 교사들을 위한 노동조합! 현장에 가까운 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 “누군가”가 되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이장원 사무총장 후보 출마사

30여년 교직생활과 함께 해온 교원노조운동 중 교사노조와의 만남이 가장 행복했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교사노조연맹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20만 조합원, 제1 교원노조’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호 1 번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김용서 후보는 초등학교사의 애로사항 및 초등교육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 경청하고 초등교육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여, 초등학교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도약을 이룬 저력으로 두 번째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김용서 선생님의 결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김용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20만 교사노조로 도약,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10대 교육·교사 현안 해결'의 길로 김용서 선생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삼송초등학교)

김용서 후보는 한국노총 가맹을 성사시키는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입법화하고,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하는 데 교사노조 연맹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연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때인지,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인지 날카롭게 파악하는 안목으로 교사노조연맹을 이끌 수 있는 사람, 흔들림 없이 교사들을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김용서 후보입니다.

권성집 (경기교사노조, 부천중원초등학교)

송수연 후보는 제주교사노조가 4명의 조합원에서 500명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수없는 고민의 시간과 교육청과의 갈등의 순간, 성공과 성장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따뜻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돌파합니다. 송수연 선생님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북촌초등학교)

경기교사노조 창립을 준비하던 2018년,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기다려 왔다'며 '무엇이든 필요한 일에 함께 하겠다'는 첫인사를 하던 송수연 선생님과 만남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한결같이 조합원 선생님,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과 원칙을 우선하고, 말의 무게를 알고, 늘 본인의 말에 책임지며 실천하는 송수연 선생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사노조연맹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홍정윤(경기교사노조, 예당초등학교)

이장원 후보는 폭넓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입견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최적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내는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노조는 항상 논쟁과 토론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주위가 소란스러워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정책글을 완성합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귀는 열고, 집중력은 최대로 발휘하는 송곳같은 선생님! 우리 교사노조의 보배입니다.

이선희(전국중등교사노조, 관악중학교)

첫번째 도약, 교사노조연맹 5년의 성과

1. 교사노조를 6만 조합원, 제1교원노조로!

- 3개 가맹노조에서 26개 가맹노조로 확대
- 6만 조합원, 제1교원노조로 성장
- 젊고 새로운 교사노조로 성장(20~40대 조합원 96%)

2. 교사와 교사노조를 위한 5대 입법 성취

- 학폭업무 교육청 이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018)
- 교사 생활지도 근거 제공 생활지도법 제정 (2022)
- 교사노조, 근무시간면제제도 허용 교원노조법 개정 (2022)
- 교권침해 학생 제제(강제전학 등) 교원보호법 개정(2019)
-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교육공무원법 개정 (2019)

3. 교사와 교육을 위한 5대 정책 실현

- 돌봄업무 교사 배제 실현
- 수능 감독관 의자 제공, 서약서 폐지
- 연가 사유 확대
-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차별 해소(2023년부터 단계별 시행)
-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확대

4. 교육과 교사를 위해 3대 악법 추진 저지

- 돌봄업무 학교사무화 입법 저지
-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저지
- 교원단체 유사 단체교섭권 부여 교원단체법 제정 저지

5. 교육 권리신장 5대 현안 공론화

-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 유급 퇴직준비연수제 도입
- 의무부과교육 교육정비특례법안(범교과 특례법) 제정

‘1 번 더’ 도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약속

하나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창립 5년만에 교사노조는 제1교원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조직률**이 높아야 힘이 있습니다.

정치시민권을 회복하여 교사 조직률 50%,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노총 제1노조로, 제1교원단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내 10만 조합원 확보하여, 20만 조합원 시대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약속

둘

교사 정치시민권을 회복하여 교사의 힘을 배가하겠습니다

교육활동과 교사의 권리는 대부분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정치시민권이 없어 법령을 바꾸기가 무척 힘듭니다.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으로 법령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교사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교사노조가 공론화한 10대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1. 3대 개악(교원정원·교육재정·연금) 저지

정부여당의 3대 ‘개혁정책’은 교원정원 감축, 교육재정 축소,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막아내겠습니다.

2.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확대

생활지도법 제정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완성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법 악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교사 본질업무 외 행정업무 배제

교사의 원래 업무는 교육, 평가, 생활지도입니다. 행정업무는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없애기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겠습니다.

4.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사노조 참여,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교원이 공무원의 40%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가 참여하게 만들겠습니다. 연맹이 제안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를 쟁취하겠습니다.

5.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교직수당 가산금(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인상

교원연구비가 직위별로 차등 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십수 년째 동결 중인 교원 각종 수당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6. 돌봄 및 방과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운영 실현

그간의 투쟁으로 교사의 돌봄업무 배제 성과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7. 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사가 수업을 잘하려면 수업시수가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수업시수와 연동되는 교원배치기준 설정을 요구하면서 교사의 수업시수를 실질적으로 감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교무학사전담 교사제 도입

교사 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도록 교사를 정원외로 추가 배치하여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교무학사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학사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9. 교원 퇴직준비연수제 도입

공무원 중 교원만이 퇴직준비연수제(일명 공로연수제)가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 교원에게도 퇴직준비연수제가 도입되도록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10. 교사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원평가 문제 해결

실효성 없이 교사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를 옥죄는 근무평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장·교감 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 1 노조를 이룬 **저력으로**
‘1 번 더’ 도약 하겠습니다